



김속민투위

분쇄! 노동탄압
강화! 산별노조
완성! 주간연속2교대
쟁취! 현장권력
철폐! 비정규직

■ 발행인 : 의장 김 봉 윤 ■ 발행처 : 선전실(25-19호) ■ 게시기간 : 10월 17일까지 ■ 게시확인 : 사업부대표 이 흥 진

‘수치’스럽다

굴종(屈從):
조합원들 뜻을 굽혀
사측에게 복종함

수치(羞恥):
조합원들 볼 낫이
없거나 스스로 떳
떳하지 못함

이것은 ‘굴종’이다

노사협착주의 보다는 못한 무능한 집행부 고작 이거 더 파낼라고 그렇게도 파업했나?

9월 27일 추가제시안에서 고작 기본급 2,000원 + 상품권 20만원이 전부다. 역대 최고의 압도적 부결 이후 추가된 것을 다 합해도 기본급 4,000원 + 상품권 30만원이 전부다. 물론 손배가압류 문제는 일부 진전된 내용도 있지만 해고자 원직 복직 문제를 사측의 입맛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합의하고 말았다. 예년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기본급 인상을 추가 하랬더니 풀랑 상추 반단 값 더 따낼려고 그렇게도 파업하고 그렇게도 질질 끌었나? 또한, 역대 1차 부결 이후 성과금,일시금 추가 제시 한 푼도 없이 다시 잠정 합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.

임금체계, 통상임금 계약 조합원 동의도 없이 합의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합의하다니...

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계약을 ‘2017년 2월말까지 합의하여 적용한다’로 합의했다. 조합원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임금체계와 통상임금 문제를 조합원 동의를 묻는 조합원 총회 없이도 집행부에서 사측과 합의하고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. 이토록 대단히 위험한 합의를 어떻게 할 수가 있나? 이건 사측이 원하는 바다.

조합원을 우습게 보지 않고는 이따구로 나올 수 없습니다. 고작 이따구 냐고 자포자기하고 포기한다는 심정으로 찬성 찍어 가결되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개판 될게 뻔합니다. 조합원을 우습게 본 집행부와 사측에 열 받은 만큼 확실한 ‘반대’ 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.